



# 88서울올림픽과 環境保全

본협회 개발부장  
行博 안 기 희

「세계 환경의 날」의 의미

6월 5일은 제 15회째 맞이하는 「세계 환경의 날」이다.

현대산업사회는 1970년대를 맞이하면서 「성장의 한계」라는 경고속에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구, 토지이용, 생산, 소비활동등 모든면에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패턴은 인구폭발, 식량문제,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오염 등으로 생태학적 위기(ecological crisis)를 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인류의 위기 위식에 대응하여 UN은 1972년 6월 5일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라는 「스토건」을 내걸고 세계 113개국 대표들이 모여 「UN인간환경선언」을 표방한 바 있다.

UN은 「UN인간환경회의」가 시작된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선포하므로써 전 세계는 매년 이날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성대히 치루고 있다.

뒤 이어 UN은 1982년 UN총회에서 「세계 자연환경장」을 결의함으로써 환경문제는 이제 UN을 중심으로 「인간환경」 및 「자연환경」에 대하여 범 세계적 차원에서 공동연대의 노력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UN의 환경선언으로 인한 전환은 역사적으로 시민이 왕권을 무너뜨리고 왕과 대등한 지위에 서게 된 「인권선언」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간도 생물권의 한 종으로써 자연을 착취하는 입장에서 대등한 지위에 서게 하려는 이러한 취지는 다음과 같은 선언문 요지에서도 잘 반영되고 있다.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를 통털어 환경에 대한 영향에 사려깊은 주의를 배려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지·무관심으로 계속 환경을 무분별하게 혹사할 경우 우리의 생명과 복지가 달려있는 지구의 환경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해독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선언의 내용은 7개부문의 전문과 26개 사항의 원칙에서도 잘 반영되고 있다. 이는 모든 국가와 국민들에게 현세대는 물론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보호와 개선에 대한 엄숙한 책임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전세계는 위와 같은 환경선언원칙에 입각하여 국내 정책과 입법은 물론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뜻에서도 우리는 내년에 올림픽을 맞이하는 중대한 국면에서 환경을 다시 한번 돌보아야 한다.



개발도상국으로 가장 먼저 올림픽을 치른 멕시코는 환경문제로 큰 위신을 추락한 사례가 있다.

올림픽을 참관한 각국 외신기자들은 각국으로 돌아가 '멕시코는 1등문화국민이 되기에는 아직 이르고 2등국민으로 머물러 주기 바란다. 그 이유는 가는곳 마다 먼지가 눈을 따갑게 하고 시야를 가렸다. 지나친 소음과 진동 때문에 선수들이 잠을 설치 운동경기를 제대로 못했다. 관광지와 주거지역의 골목길은 심한 악취로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요지의 기사를 대서 특필했다. 그러므로 뜻 깊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1년 앞둔 우리의 '88올림픽과 환경보전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 '88올림픽과 세계적 동향

'88서울올림픽대회가 내년 9월 17일 부터 10월 26일까지 잠실주경기장 및 각종 부경기장에서 치루도록 결정되어 있다.

전 세계 167개 IOC회원국의 1만3천6백여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하여 23개 종목의



각종 경기를 펼치게 될 것이다. 이 세계적 대체전에 약 30만명에 가까운 참관객들이 우리나라

를 방문하여 우리의 고유한 문화와 발전상, 그리고 우리들의 행태를 관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서울올림픽의 주된 의의는 동서진영의 해빙무드를 타고 사상 최대의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미국등 일부 자유진영이 불참하였고, '84년 LA 올림픽은 소련 및 일부 공산권 진영이 불참함으로써 절름발이 대회가 되어 '88서울올림픽에서조차 송고한 올림픽 정신이 소생되지 못한다면 전인류의 화합과 단결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전세계의 이목은 모두 서울로 향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밝은 전망은 소련이 공식으로 서울올림픽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유고·동독·폴란드·쿠바등 LA올림픽에 불참했던 대부분의 공산권 국가들이 이미 참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림픽헌장 규칙 제1조에 의하면 올림픽의 목적은 「경기의 기초를 이루는 정신적·신체적 자질의 발전을 도모하며, 경기를 통하여 상호간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도록 젊은이들을 교육함으로써 보다 더 평화로운 세계의 건설에 이바지하며 국제친선을 도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경기를 통한 전세계 젊은이들의 교육·평화·친선의 잔치마당을 분단국인 한국을 택함으로써 그 어느때 보다도 올림픽 개최에 이념과 체제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려는 IOC의 다각적인 노력은 크게 돋보인다.

이러한 IOC의 회원국들에 대한 끈질긴 설득과 노력은 '80년과 '84년의 불행이 더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감 때문이기도 하다.

전 부터 스포츠에 관한 한 문호를 개방해온 우리나라는 IOC와 함께 현재까지 북한의 참가를 계속 중용하고 있는 중이다.

끝내 북한이 불참한다 해도 내년 대회는 미·소가 참가하는 대화합의 장소가 될것만은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이 대체전을 보다 원만히 치루



기 위해서 운동장 시설의 점검은 물론 선수촌, 기자촌, 방송통신망, 경기장 주변환경 미화와 각종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경기자들에게 있어서 쾌적한 환경보전은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

세계적 동향을 살펴 보아도 유엔산하 상설기구인 UNEP (유엔환경계획)의 사무총장 Mr. Tolba는 「'88서울올림픽이 순수한 체육제전이 되어 세계인의 화합과 국제간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제전을 통하여 청년·스포츠·환경 (Youth·Sports·Environment) 운동으로 추진하여 한국이 이와 같은 비정치적 모임인 세계청소년들의 체력단련 및 상호 존경을 위한 범세계적 운동의 최초의 나라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할 정도로 전세계적 관심이 환경차원에서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생태계의 자정능력이 온전하던 제 20회 뮌헨대회 (72)까지는 올림픽과 환경문제는 숙박시설·음식등 위생 문제가 주로 거론되었으나 제 21회 몬트리올 올림픽대회 (76)때 부터는 주로 경기력과 대기오염 등의 공해문제가 주로 거론되고 있다.

#### 올림픽과 환경문제

근대 올림픽의 시원은 1896년 도시국기인 아테네라는 공간환경에서 부터 출발되었다. 즉 올림픽은 많은 인원과 교통 등을 수용하게 되도록 농어촌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올림픽은 해를 거듭하면서 점점 거대화 되면서 부터 인력·물자·시설·교통등이 큰 도시를 찾게 되었고, 이러한 상관관계는 도시오염이라는 난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서두에서와 같이 1970년대를 전후하여 전세계는 UN인간환경 선언과 환경기구의 창설 등 환경문제에 대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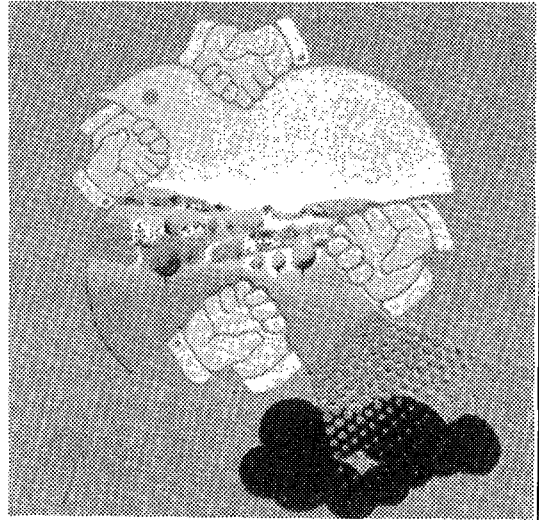
그 중에서도 UNEP를 비롯한 세계각국의 환경정책을 위한 공동노력은 전세계 국민대중들에게 이해심과 경각심을 크게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국민의 환경권 의식이 높은 수준에서 치

루어 지는 올림픽은 환경문제를 도저히 외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환경문제가 올림픽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례 몇가지를 언급해 보기로 한다.

①제 21회 몬트리올 올림픽대회 ('76)에서는 대기오염이 마라톤 경기의 기록에 중대한 장애를 준다는 이유로 대회기간 중 대기오염 상태를 측정·공개한 바 있다.

②제 22회 모스크바 올림픽대회 ('80)에서는 IOC에서 대기오염이 명확히 경기에 장애가 있다고 인정하고, 모든 경기장에서 대회기간중 아황산가스등 대기오염상태를 검사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IOC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시킨 바 있다.

③LA올림픽 ('84)을 위하여 '83년 사라예보에서 개최된 IOC의무위원회에서는 LA의 대기오염과 Smog현상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있



어 LA올림픽위원회에 과거 5년간의 기상조건 및 대기오염 상태 측정자료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다. 그중 특히 운동경기가 열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각시간마다 기온·습도·풍향·풍속과 대기오염의 측정치를 제출하도록 하여 남녀 다같이 모든 경기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성공적으로 치루게 되었다.

LA올림픽대회 이후 부터의 교훈은 올림픽을

치루려고 신청하려면 과거 4, 5년간의 대기오염 측정자료가 IOC에 제출되어 경기력에 하등 지장이 없다는 인정을 받기 전에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참가하는 선수 및 임원들의 건강문제이다. 그중에서도 대기오염은 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

대기오염은 호흡기에 직접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경기중은 정상시의 10 ~ 20배로 증가하며, 입호흡량이 코호흡량을 훨씬 증가하게 된다. 이때에 아황산가스, 먼지, 옥시단트 등의 오염물질이 코호흡을 통해서 제거될 수 없고, 막바로 기관지 폐포에 흡입되므로 대기오염이 심할 경우 과도의 운동중에는 호흡곤란까지 초래하게 된다. 그 외에도 천식기가 있는 선수들에게 오존, 분진, 아황산가스의 낮은 오염도에서도 천식발작이 일어나 호흡곤란으로 운동이 불가능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운동경기에 장애를 주는 아황산가스 농도는 0.03 ppm, 분진(TSP)  $75 \mu\text{g}/\text{m}^3$ ,  $\text{O}_3$ 는 0.15 ppm이라고 한다.

#### 청년·스포츠·환경

올림픽의 주역은 역시 청소년들이다. 이들이 마음껏 펼치는 경기력을 관람하기 위해 전세계의 서로 다른 민족들이 언어와 종교와 이념을 초월하여 모이게 된다. 그래서 올림픽대회를 일러 젊은이들이 스포츠를 통하여 국가와 인류 상호간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키고 청소년들에게 보다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데 이바지 하게 하는 가장 이상적인 대체전이라 일컫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체전은 미래의 이 세계를 젊어질 청소년들이 맑은 공기, 청정한물, 푸른숲, 깨끗한 토양을 근간으로 하는 쾌적한 환경 위에서 마음껏 펼쳐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쾌적한 환경이란 경기자인 청소년들은 물론 임원, 관람객들이 맑고 싱그러운 공기를 호흡할 수 있어야 한다. 어디를 가든지 푸른숲이

우거지고 새소리가 들려야 한다. 청정한 강물이 보이는 하얀급 심미적 욕구를 충족해 주어야 한다. 휴식공간과 산책로 및 주거환경은 지나친 소음과 진동이 없어야 한다. 골목길은 지나친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한다. 관광지, 문화재주변은 폐기물이 쌓이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경기장 주변은 물론 어디를 가든지 매연과 먼지가 시야를 가리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청년·스포츠·환경은 불가분의 함수관계에 있다. 청소년들이 힘과 기, 미와 예를 겨루는 경기력에 어떠한 지장을 주는 환경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마디로 젊은이들의 육체적·정신적 발전에 기여하는 스포츠는 반드시 아름답고 쾌적한 좋은 환경에서 꽃을 피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여기서 좋은 환경이란 수려한 자연경관의 보전은 물론, 운동경기장의 정리정돈, 질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수준까지의 환경을 포함하여 주민들의 민도, 단결심, 참여의식등 이방인들에게 쉽게 느껴지고 비칠 수 있는 감각적, 행태적 측면까지 광범하다 할 것이다.

올림픽을 위한 청소년들의 스포츠 환경이 아니라 올림픽이후까지 백년대계를 위한 영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

'88 서울올림픽은 정해진 내년 10월후면 끝나지만 그 올림픽이 끝나도 계속 우리 청소년들의 스포츠, 나아가 전국민의 건강을 위한 쾌적한 환경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 범국민 환경보전운동의 활성화

우리민족은 옛 부터 일상가정생활에서 귀한 외부 손님을 초대할 경우 후하게 대접하는 인심을 베풀었다. 즉, 아버지는 집수리와 정원손질, 어머니는 집안단장 및 음식준비, 자녀들은 집안청소 및 화단가꾸기등 온집안 식구들이 주로 환경미화에 최선을 다해 오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 왔다.

유사이래 최대규모의 국제적 행사에 정부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전 국가와 기업인 그리고 전 국민들은 범국민환경보전운동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야겠다.

정부로서는 운동경기장 시설과 각종 행사의 책임, 기업인은 오염물질 배출의 억제와 자제, 국민은 주변환경미화등 맡은 책임등을 스스로 채근해 나가야겠다. 국가가 올림픽을 위해 지금 벌리고 있는 환경분야의 많은 투자는 단번에 끝나고 마는 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 효과는 우리 후손에게 까지 길이 지속될 장기적인 투자여야 한다. 물론 '88 서울올림픽이 우리의 환경보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 주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88 서울올림픽이 없었더라도 우리는 우리들의 환경을 돌보아야 할 절박한 시점에 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직도 개발우선의 철학이 지배적이며 환경보전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개발과 보전은 선후의 별개문제가 아닌 통합된 하나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환경투자의 효과는 올림픽을 위해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후손들에게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들의 영원한 터전 이땅에서 1년후면 전세계 인류 대제전이 펼쳐진다. 가슴 뿌듯한 일이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국방비, 이자상환, 원자재 도입등의 난제가 산적해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이나 서구처럼 기존의 훌륭한 경기시설도 없다. 각종시설이 빈약한 가운데서 전부 새로 투자되어야 하며, 성장일변도에서 벗어난 환경오염의 부산물도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한국은 분단국이라는데서 또는 자원이 빈약한데서 그리고 환경문제가 있는데서 올림픽을 치루기 때문에 전세계 이목이 집중된다. 이러한 의구와 경의속에서도 우리는 훌륭하게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모두 범국

민환경보전에 앞장서자. 특히 북한이 남북한 분산 개최이유로 한국의 환경오염을 지적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뜻에서도 우리들의 환경보전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올림픽 같은 거국적인 국제 행사에는 국가의 효율적인 투자도 중요하지만 각종 환경오염 배출시설들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의 환경오염의 억제와 개발에 대한 자제가 앞장서야 한다.

본 협회는 수년전부터 매년 올림픽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환경보전범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①전 회원사의 환경보전 운동요원화, ②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과제개발 및 실천, ③전국 명예회원을 통한 지역지도자의 조직강화등 전국민환경보전 의식의 생활화에 총력을 매진하고 있다.

가까운 동경올림픽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올림픽 개최로 인한 파급효과는 단순한 메달획득의 차원을 넘어 정치·경제·문화·사회의 종합적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어 주었다. 여기에서도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스스로의 참여의식의 고조와 공중질서의식 그리고 도덕심의 제고에 큰 변화를 끼쳤다. 우리는 반드시 올림픽을 위해서 환경보전운동을 벌리기 보다 이러한 거국적인 동기부여로 해서 조국의 산하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자. 그리고 생활주변 환경을 미화하고 화분이라도 하나 더 들여 놓자. 이웃에 악영향을 미치는 소음·진동·악취를 줄이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선진국으로 한걸음 내딛는 중요한 문턱에 서있다.

우리는 다시한번 옛부터 환경문화유산을 아껴온 민족임을 자각하고 전세계의 동반자로서 국제평화와 세계인류 공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

모든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생활화합시다.